



宗訓

1. 崇祖 精神의 高揚
2. 宗族 和睦의 勵行
3. 國家社會에 貢獻

順天金氏中央宗親會

# 順天金氏宗報

제 63 호

2010. 2. 25 (목)

順天金氏中央宗親會 발행/발행인: 김행엽/ 편집인: 김은한/ <http://www.schkim.co.kr> /138-839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101-11호 新和SILK빌딩 2층/전화: (02)400-2501~2502/FAX: (02)400-2505

## 새해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전국의 종친 여러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다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종친회도 회장의 서거라는 어려운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요즈음의 세계정세는 그야말로 약동과 기복이 교차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위상은 날로 약진하고 있음을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을 기원으로 촉발되었던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많은 국가들이 혼란에 빠져 들었지만 우리나라는 재빨리 이를 헤쳐내고 우리 경제사상 최대의 국제 수지 흑자를 이루었고 수출에 있어서도 1964년 1억불에 불과했던 후진국의 지위에서 세계 9위라는 수출 대국으로 발돋움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다른 나라를 후원해주는 지원국으로 당당히 그 지위가 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위상의 변화로 우리나라는 금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기로 되어 있는 경제 대국 G20의 의장국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60년전 그 참담했던 6.25의 잿더미 속을 헤치고 나와 일류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우

연이 아니요 우리들의 강인하고 끈질긴 노력과 근면성에다 우리 민족의 선천적인 우수한 두뇌로 지속적인 기술개발 덕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보다 선진 기술과 자본으로 세계시장을 주름잡던 일본은 「주식회사 일본」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도 선망했었던 건만 최근에는 토요다 자동차의 위기, 일본항공사의 주식상장금지, 그리고 세계 전자 제품 시장을 석권했던 소니의 추락 등 그 명성이 흔들리고 있는 반면 우리의 삼성, LG와 같은 전자회사와 현대, 기아와 같은 자동차 회사는 그 업계에서 선전을 거듭하고 있고, 또한 지난 연말에는 한국전력이 아랍에미리트에 400억불의 원자력발전소의 수출이 성사되는 등 우리 국력의 신장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0년 동계올림픽에서의 우리 젊은 선수들의 투혼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하리만큼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분야에서 우리의 국운이 날로 성장하여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종친회 뿐만 아니라 전국의 순천김씨 문중의 모두가 과거의 낡은 틀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날개를 활짝 펴고 이 상승세에 편승해서 높이 높이 창공을 비상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종친회가 새로운 개혁과 발전의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종친들의 배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년 경인년에는 그야말로 호랑이와 같은 기세로 여러분 가정이 더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신년하례회 개최



본회에서는 지난 1월 19일 30여분의 종현들을 모시고 신년하례 모임을 개최하였었다. 먼저 국민의례와 조상님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이 있었고 이어서 行燁회장님의 경인년 호랑이해를 맞이하여 종현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빈다는 인사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상호 교례인사를 나누었다.

다음으로 시루떡 절편(切餅) 순으로 연치 높으신 종현들께서 떡을 자르고 음료수로 일제히 건배를 하였다. 그리고 떡과 다과를 들면서 정겨운 담소가 벌어졌는데 昌淵종현께서는 사진자랑을 하였고 榮培종현께서는 옛날에 호랑이가 시묘(侍墓)하는 효자(孝子)를 지켜주었다는 이야기 또는 호랑이 담배피웠다는 이야기 그리고 꽃감과 호랑이 이야기 등 호랑이 이야기 꽃이 피었다.

그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호랑이는 영험한 짐승”으로 전해졌다고 하는데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상황이 전개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본다.

주식시간이 되어 이웃의 식당으로 옮겨서도 반주 한잔씩을 하시고 정담을 나누며 식사를 마치고 각기 귀가길에 올랐다.

## 2010년 호랑이 해에 ...

2009년이 우직하게 일하는 소의 해였다면 2010년 경인년은 용맹함을 상징하는 호랑이해다. 동양에서의 범은 힘과 정열과 용기를 상징한다. 예로부터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호국의 상징이기도 하다. 새해에는 호랑이처럼 어려운 시기를 용감하게 보냈으면 한다.

### 호랑이의 상징

대부분의 나라에서 동물들은 저마다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국에서는 물고기가 재물을 상징하기 때문에 신년 연하장이나 장식용 벽걸이에 많이 등장한다. 일본에서는 고양이 복을 부르는 역할을 해서 가정마다 손을 들어 복을 부르는 고양이 장식품을 하나정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호랑이가 아닌가 싶다. 대부분 산으로 이루어진 우리 한반도는 일찍부터 호랑이가 많이 살아서 ‘호랑이의 나라’로 일컬어지기도 했다. 균형 잡힌 신체 구조, 느리게 움직이다 목표물을 향할 때의 빠른 몸놀림, 빼어난 지혜와 능률한 기풍을 지닌 호랑이는 산군자(山君子), 산신령(山神靈), 산중영웅(山中英雄)으로 불리는 백수의 왕이었다.

호랑이는 재앙을 불고 오는 포악한 맹수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사악한 잡귀들을 물리칠 수 있는 영물로 인식되기도 한다. 또한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예의 바른 동물로 대접받기도 하고, 골탕을 먹는 어리석은 동물로 전락하기도 했다. 우리 조상은 이런 호랑이를 좋아하면서 싫어하고, 무서워하면서 우러러보았다.

### 우리 민족과 함께 한 호랑이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로 시작되는 옛날이야기 속에는 으레 재미있는 호랑이 이야기가 있다. 힘세고 날래지만, 한없이 어리석어 사람들, 토끼나 여우, 까치 등에게 골탕 먹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도 있다. 반면, 호랑이가 신통력을 지닌 영물로 사람이나 짐승으로 변신하면서 미래를 내다볼 줄 알고, 의(義)를 지

키고 약자와 효자, 의인을 도우며 부정함을 멀리하는 신비스런 동물로 등장하는 교훈적인 이야기도 있다.

호랑이가 한반도에 출현한 것은 3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울주 반구대 바위그림 호랑이의 풍요 기원, 와당 도자기 등의 민예품에서 보이는 곳곳한 예술성과 재기 넘치는 익살, 민화와 산신도에 나타난 질박함과 종교적 기원 등등 수많은 정취를 함축하고 있다.

정초에 호랑이 그림을 대문에 내다붙이거나 부적에 그려 넣기도 하고 조정에서는 쑥범(쑥으로 만든 범)을 만들어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무관의 관복에 용맹의 표상으로 호랑이 흉배를 달아주기도 했다. 자식의 입신양명을 위해 산방(産房)에 호랑이 그림을 붙여 놓기도 하고, 장가갈 때 새 신랑이 호신장구로 창도(粧刀)나 호랑이 발톱을 달거나 허리에 찼다. 여인네 장신구나 장식품에도 호랑이를 새겨 넣기도 했다. 심지어 무덤 주위까지 능호석(陵護石)으로 세워 망자의 명복을 빌기도 했다.

### 마음속의 호랑이를 깨우자

건국신화에서의 용기, 개척, 창조, 진취 등으로 상징되고, 호행설화에서는 윤리의 정립과 그에 따른 부귀영화의 형성에 단단히 한뼉을 한 호랑이.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또 가장 이상적인 인격의 상징으로 전해지는 호랑이, 의(義)를 사랑하고 비겁하지 않은 호랑이의 모습이 범띠 해를 맞은 우리가 지니고 싶은 모습이기도 하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속담을 되새겨본다. 어려운 시기를 용기 있게 헤쳐나가는 경인년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 2010년 새해를 맞아!

지난 2009년 6월 21일 중앙종친회 김종식회장님께서 서거하셨습니다. 총 종친회장직을 수행하시는 20년 동안 많은 업적을 남기셨기에 수많은 종친께서 안타까워하며 애통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김종식회장님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2009년 11월 16일 20차 정기총회에서 제2대 중앙종친회 회장님으로 김행엽종친께서 취임하셨습니다. 모든 종친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이제 2010년 대망의 새해를 맞아 새로 취임하신 김행엽 총회장님과 함께 순천김씨 중앙종친회가 새롭게 큰 뜻을 품고 당당한 모습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총종친회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종친께서 한마음이 되어 회성으로 감추어져 알려지지 않은 보배로운 순김을 들어내어 빛낼 수 있는 원년이 되길 새해를 맞아 기원해 봅니다. 아울러 우리 순김종친께 삶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하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삶이 다른것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고 생각이 다른 것은 내게 닥친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게 왜 이런 상황이 닥치는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름 때문에 생겨난 것이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불교에서는 모름의 답으로 업(業)이라 했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라 했지만 착한 사람이 불행을 당하게 되면 모든 믿음이 깨지고 허망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상황일 뿐..... 그것은 생각하기에 따라 좋을수도 나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상반된 것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것 속에는 반드시 나쁜것이 들어있고 나쁜것 속에는 좋은것이 들어 있어 호사다마라고 하지 않습니다. 밤과 낮이 짝이듯 행복과 불행은 언제나 함께 하는 짝입니다. 이처럼 짝으로 되어 하나로 존재할 때 그 쌍을不二라고 합니다.不二를 깨달으면 부처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도사에 가면不二門을 통과해야 부처님있는 곳으로 갈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교의 목적은 깨달음이고 기독교의 목적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깨달음이란不二를 통해 모름을 알게 되는 것이고 구원이란 모름의 세계에서 앎의 세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不二라는 것

은 너와 내가 돌이면서 하나이고 하나면서 돌이리는 것. 생과 死가 돌이면서 하나이고 하나면서 돌이리는 것. 둘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하나는 生도 아니고 死도 아닌 것 또는 生이면서 死이고 死이면서 生인 것이니 그것은 언어문자로 표현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가르쳐 줄수없는 초월적인 것으로 그 하나를 절대라 하고 그 절대는 영원불변성을 갖게 되어 믿음의 대상일 뿐 증명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그것에 이름 붙인 것이 하나님요 부처님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깨달으면 生과 死에서 자유로우니 이를 해탈이라 합니다. 일찍이 성현들께서 이를 깨닫고 삶의 목표를 깨달음과 구원에 두었습니다. 언어문자로 가르쳐 줄 수 없기에 수많은 비유를 통해 후손들에게 전한 것이 성경이요 불경입니다.

生과 死가 엄연히 구별되어 있는 상대 세계에 살면서 절대 세계를 깨닫는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겠으나 하늘의 법을 믿고 그 법에 순응하면서 살아갈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법이란 사랑하면 사랑받고 미워하면 미움 받는다는 것.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것. 이것입니다. 하늘의 법은 너무나 쉽고 단순해서 세살먹은 삼척동자도 알기는 다 알지만 실천하기는 팔십노인도 어려운 것이 하늘의 법입니다. 하늘의 법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부처님을 믿는 것이며 하늘의 법을 따르며 사는 것이 하나님 부처님 자녀로 산다는 것이니 우리 모든 순김종친께서 사랑하는 삶을 통해 사랑받는 사람되시길 기원합니다.

과거를 통해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을 믿는다면 오늘의 삶을 통해 어떠한 미래를 맞게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의 답은 누구나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인생의 종착역에 도달했을 때 의미를 들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살면서 주고받는 사랑뿐입니다. 이 세상에 남겨놓고 갈 가치있는 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여 사랑받는 한해 되소서! 그리고 행복하소서!

圖一 金光淵



### 訃音

본회 업무에 적극 협조하시고 典書公派(전서공)의 대소 종사를 총괄하시던 절운(節雲) 병학(炳學) 종회장께서 숙환으로 지난 2월 13일 별세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謹賀新年

▶大宗孫 仁煥 (충남)

▶會長 行燁 (서울)

▶名譽會長 相容 (광주)

▶常任顧問 學元 (경기)

▶顧問 榮熙 (대구), 柄錫 (전남),  
昌淵 (서울), 贊洙 (전남),  
東吾 (경북), 大永 (경북),  
東柱 (경기), 采源 (서울),  
達賢 (서울), 載俊 (서울),  
明奎 (울산), 桂在 (경기),  
明在 (경기), 斗淵 (경북),  
仁培 (日本), 沅杰 (경북),  
升淵 (서울), 仁燮 (부산),  
甫淵 (부산), 鳳培 (부산),  
相權 (경기), 榮培 (서울)

▶常任副會長 春熙 (전북)

▶副會長 榮穆 (충남), 炳學 (경기),  
料元 (광주), 相洪 (경기),  
喆俊 (서울), 秀淵 (서울),  
輔淵 (경기), 錫淵 (경기),  
承淵 (경북), 東均 (대구),  
東哲 (경북), 之煥 (경기),  
炳鮮 (대전), 正雄 (대전),  
祐永 (부산), 志燮 (충남),  
喜遠 (경북), 東泳 (대구),  
相煜 (광주), 應烈 (광주),  
學淳 (전남), 白源 (전남),  
東學 (경기), 京烈 (경기),  
承燁 (서울), 鳳遠 (대구),  
相默 (전남), 鎭錫 (전남),  
景南 (경기), 鳳煥 (경북),  
道淵 (경북), 光弘 (서울),  
俊一 (경기), 道淵 (인천),  
哲宇 (경북)

▶運營委員 光輝 (광주), 基錫 (경기),  
喆元 (서울), 長元 (인천),  
亨民 (서울), 秉準 (경북),  
信淵 (서울), 昊淵 (서울),  
光在 (경기), 光淵 (경기),  
洞根 (경기), 成福 (충남),  
井洙 (경기), 興淵 (서울),  
賢熙 (전남), 相實 (전남),  
相南 (전남), 龍得 (전남),  
相訓 (광주), 東元 (충남),  
東漉 (경북), 東洙 (전남),

▶監事 鐘元 (경기), 正熙 (전남)

▶幹事長 殷漢 (경기)

▶總務幹事 範載 (서울)

▶宗務幹事 東元 (서울)

▶弘報幹事 承淵 (서울)

▶財務幹事 于載 (경기)

▶青年幹事 原必 (경기)

▶理事 峻 (인천), 相大 (대전),  
碩禧 (대전), 在煥 (전북),  
光元 (전남), 西錫 (전남),  
亨柱 (광주), 吉炷 (전북),  
洙容 (대구), 正市 (대구),  
淳煥 (대전), 永祥 (서울),  
在錄 (경기), 秀禎 (경기),  
允在 (경기), 澤洙 (경북),  
龜淵 (서울), 大淵 (경기),  
東賢 (충남), 東春 (경북),  
奎一 (대구), 商根 (충남),  
淵福 (서울), 倍弘 (충남),  
正琪 (전남), 相範 (인천),  
相允 (전남), 仁遂 (충남),

商右 (서울), 明洙 (서울),  
東俊 (전북), 安千 (광주),  
東勳 (전북), 東萬 (서울),  
斗燮 (경북), 道均 (강원),  
館旭 (인천), 在熙 (전남),  
亨在 (대구), 志淵 (경북),  
館旭 (인천), 在熙 (전남),  
亨在 (대구), 志淵 (경북),  
東一 (경북), 光洙 (경기),  
重溶 (경북), 商應 (경기),  
商宇 (경기), 商錫 (경기),  
商祐 (경기), 瑞淵 (경기),  
漢炷 (전남), 永奎 (경기),  
東旭 (경기), 相大 (전남),  
亨煥 (전남), 東濬 (충남),  
宗暄 (서울), 榮鶴 (경기),  
泰洙 (전북), 吉元 (충남),  
賢熙 (전남), 大錫 (충남),  
柄旭 (서울),

▶代議員 順元 (경기), 明載 (경기),  
基元 (충남), 鐘鉉 (경북),  
東範 (경북), 潤煥 (경북),  
昌燮 (경북), 五鉉 (경북),  
秉德 (경북), 樂熙 (부산),  
承翼 (전남), 勝夫 (전남),  
相律 (서울), 季煥 (전남),  
仁孝 (충남), 長煥 (충남),  
有煥 (충남), 光州 (전북),  
龍錫 (경기), 海日 (경북),  
商德 (서울), 商珉 (경기),  
魚淵 (경기), 世淵 (충북),  
東元 (경기), 愛淵 (경기),  
昌元 (전북), 弘仁 (대구),  
完善 (경기), 錫元 (전남),  
東善 (경기), 海洙 (부산),  
賢國 (서울)



## 순천지방의 역사와 문화(2)

### 4) 팔마비의 유래와 역사의 교훈

순천지방에 사는 사람으로서 팔마비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역사적 유래와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고려사』 열전에 의하면 팔마비의 유래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록을 전하고 있다.

순천지방의 고사에 매년 태수가 갈려갈 때마다 말 여덟필을 선사하고 副使에게는 일곱필을, 法曹에게는 여섯필을 갖게 하되 그들 마음에 드는 말들을 골라가게 했다. 최석이 돌아갈 때 역시 말을 바치면서 좋은 것들을 고르게 하니, 그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말은 서울까지만 갈수 있으면 족할 것인데 골라서 무엇하겠는가”라고 했다 한다. 최석이 이삿짐을 신고가서 서울집에 도착한 뒤 따라온 고을 사람들에게 그 말들을 되돌려 보내려 하니 받지 않으려 하였다. 이때 그가 말하기를 “내가 올라올 때 망아지를 낳은 말이 함께 따라왔으니 이 또한 내가 차지하면 탐욕일 수 있다. 지금 이 말들을 그대들이 받지 않으려 하니 이는 내가 속으로는 탐내면서 겉으로는 사양하는 줄 알고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그 망아지까지 아홉 마리를 모두 돌려 보냈다. 이로부터 민폐를 끼치는 贈馬의 폐해가 없어졌고, 따라서 순천사람들이 최석의 성덕을 칭송하여 빗들을 세워 팔마비라 이름하였다. (『高麗史』 권121, 「列傳」 권34, 崔碩條)

위의 글이 순천 팔마비의 유래를 기록한 가장 정확한 사료이다. 이것을 통하여 최석은 맑고 깨끗한 청백리 정신을 순천지방 사람들에게 오래오래 심어주었고, 또 이것이 바로 한국 역사상 최초로 세워진 지방관의 선정 겸 청덕비 제1호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보듯이 팔마비가 지닌 첫 번째 의미는 높은 청백리 정신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가 남아있다. 청백리 최석 편에서만 팔마비의 의미를 생각하지 말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알려진 순천지방 편에 서서 또다른 의미의 팔마비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가령 贈馬의 풍습이 목민관의 고달픈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부사에 대한 답례였다고 보면 이것은 뇌물일 수 없고 여하한 청탁의 의미도 없는 순수한 선물일 뿐이다. 따라서 이것은 지방관이 부임해 올때 요란하게 베푸는 향응류와는 전혀 다른 것이며, 임기중에 지나치게 행하는 아부성 대접과도 성질을 달리한 것이다. 떠나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이미 관직이 바뀐 부사이지만, 그래도 遺恩을 잊지 않았던 이 고장사람들의 따뜻한 인정이야말로 청백리 정신에 못지않게 높은 것이 아니었을까, 지금 우리는 한때 이것 저것으로 아부해가며 열성으로 모셔 받들던 윗사람이 그 자리를 떠난 뒤 지난날과는 달리 그 사람에 대한 험담만을 끝없이 늘어놓는 사람들을 가끔 본다. 또 아이들의 학급담임이 정해지면 부산하게 찾아가 ‘인사드린다’는 사람들이 학기말에 돼 끝나는 날엔 감사한다는 말 한마디조차 잊고사는 현실속에 살고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팔마비에 대한 故事를 통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또다른 역사교훈을 깊이 새겨보아야 할때다.

### 5) 영원한 興學의 고장

조선시대 순천지방에 문풍이 떨치면서 지방교육에 큰 영향을 주게 된 것은 연산군 때 최고의 성리학자인 김굉필이 순천에서 귀양살이를 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무오사화 때 함경도 희천에 유배당한 그가 1500년(연산군 6)에 순천에 유배지를 옮겨온 다음, 갑자사화가 일어나 현지에서 사약을 받기까지 5년 동안 순천에서 정통 성리학을 전수하고 교육활동을 편 것이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다. 순천에서 이루어진 성리학자 김굉필의 교육활동은 『승평지』에 그 대체적인 내용이 소개되어 있지만, 유배지에 심은 그의 교육의지는 순천지방교육의 씨앗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전기 호남지방의 사림사회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주었다. 이와 같은 김굉필의 영향은 그 후 순천에 옥천서원이 건립되게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전라도 최초의 사액서원으로서 이 후 순천의 지방교육 발전을 더욱 자극한 촉매가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분위기하에서 지방교육의 터전을 닦은 순천지방은 조선후기에 들어와서도 현지의 지방관과 향중유림 중심으로 활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졌다. 당시의 실정에서는 전국적으로 정규교육

이 매우 부실했던 상황이었지만 순천의 경우에는 인조때 부사 김종일과 현지 사림의 노력으로 향교의 교육환경이 크게 일신되었는가 하면, 숙종 때의 경우에는 지방관이 자신의 봉급을 털어 사립학교를 설립하여 교학진흥에 큰 자취를 남기기도 하였다. 순천의 교육사적 전통은 역시 순천향교의 하나로 이 지역의 왕성한 유림기반을 대변해 주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십분 발휘하고 있었다. 따라서 현재 순천향교의 뜰앞에 우뚝선 두기의 흥학비(興學碑)야말로 조선시대에 있었던 지방교육진흥의 뚜렷한 상징인 동시에 순천이 오랜 교육전통의 고장이었음을 입증해 준다.

### 6) 興學 고을의 師道

순천향교의 앞마당에 들어서면 동쪽 울타리에 줄지어 서있는 비석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그 가운데 유난히 키가 큰 두기의 비석이 있는데 둘다 흥학비로서 요즈음 표현으로는 교육진흥비라 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인조때 순천부사로 있으면서 향교의 교육기반을 확고히 했던 金宗一(1647~1649 재직)의 공적에 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숙종때 역시 순천부사로 있으면서 義士齋란 사립학교를 설립하여 지방교육을 크게 일으킨 黃翼再(1716-1718 재직)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황익재 부사가 세운 양사재와 관련된 이야기이다.

순천부사가 자신의 사재를 털어 향림사 옆에 세웠던 양사재에는 부사가 직접 초빙해온 태인출신의 燕川 韓伯愈 선생과 많은 학생들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해 극심한 흉년이 들어 고을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사태가 발생하자 학생들은 굶주림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 이로 인해 텅빈 교실에는 오천선생만이 홀로 그곳을 지키며 제자들이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천선생이 이 몇째를 굶고 있던 어느 날 한 학생이 찾아왔으니 下沙에 살고 있던 金亨三이란 학생이었다. 스승의 안부가 걱정스러워 왔다가 거의 실신상태로 학교를 지키고 있던 선생을 본 제자는 기가 막혔다. 그날 저녁 형삼은 밥 한상을 마련해 와서 오천선생께 차려 올렸다. 그러나 선생은 “네가 먹어야 된다. 어찌 나를 염려하느냐”라고 한사코 그 밥상을 사양하였다. 사제간에 육신 각신하다가 선생이 마지못해 숟가락으로 반을 그어 먹고난 다음 나머지 반은 제자가 먹게 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정조때 순천 주암출신의 조현범이 쓴 『강남악부』의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다. 그리고 『강남악부』에 실린 글의 제목은 ‘한결같이 스승을 섬긴 제자’란 의미에서 「事一歡」이라 했다. 이 이야기는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순천이 역사적으로 ‘흥학교’ 즉 교육의 고장으로 소문난 것이 우연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학생편에서 보다는 뒤집어서 선생편에서 보는 것이 오늘날의 교육현실에 비추어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한다. 더없이 혼란스럽고 각박한 현실에서도 맑고 깨끗한 스승이 있고 師道가 살아있다면 교육 또한 그대로 살아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언제 학생들이 학교에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굶주림으로 자신의 목숨조차 부지하기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교실을 떠나지 않고 학교를 지킨 양사재의 오천선생, 죽어도 학생을 가르쳐야 하겠다는 스승의 師道가 있었기에 그 스승을 끝까지 섬긴 제자가 있었음을 보여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숭고한 師道가 있었기에 우리의 전통교육이 시들지 않고 지켜져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또 가르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흔히 말하기를 선생은 스승이 없고, 학생은 있어도 제자가 없다 라고들 말하는 현실에서 보면 양사재의 스승 오천선생과 제자 김형삼의 師弟之道가 더욱 찬란하다.

순천대학교 조영래



# 이집트 그리스 터키 旅行記(2)

증보 제61호 6면글의 후속입니다. 이 글은 부산의 김길연(金吉淵) 화백께서 병환 중이시면서도 우리 종친들을 위해 정리하신 글이오니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백께서는 저 세상으로 가셨으니 다 같이 명복을 빌어 드립니다. (편집자 주)



4월 6일... 호텔(Nale Palac)에서 주는 빵이든 도시락이다. 5시 30분 공항으로 이동 1시간 거리인 룩소르로 향한다. 이집트 최고의 고고학 유적지로 룩소르 고대유적지는 크게 나일강 오른쪽 강변에 있는 룩소를 신전, 아몬대신전과 강 건너편에 있는 왕의 계곡 왕비의 계곡이 있다. 이 많은 신전의 웅장함과 기둥위에 올린 석조물들 현대의 기계로 하여도 고도의 숙련된 기술이어야 하는데 하늘과 땅과 신의 위력이 아니고 어떻게 인간으로서 축조되었을까? 감탄을 금할 길 없다. 카르나신전, 아몬신전, 룩소르 신전 등을 보고

아쉬움을 뒤로 한채 카메라 셔터를 눌러본다. 이집트 고고학 박물관에는 미라를 만들 당시의 수술대도 있다. 박물관의 미라들은 모두 곱게 화장하고 화려한 의상과 장식품들로 만들었다. 수많은 미라들은 파라오, 신관, 상류 계급의 사람들이다. 이다음 다시 영혼이 들어오면 살아나 누렸던 영화를 계승한다고 믿었다. 나일강 서쪽으로 이동 왕의 계곡과 왕비의 계곡에는 풀 한 포기 보이지 않는 사막 산이다. 합세슈트 장제전 주변에는 운통 역대 왕과 왕비 상류 계급의 무덤뿐이다. 귀족들의 공동묘지인 셉이다. 왕과 왕비의 계곡 입구에는 뱀(colossi Memnon) 거상이 2개의 조각상으로 우뚝 서 있다. 옛 기록에 오른쪽 거상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흐느끼는 소리를 냈다고 한다. 이는 춥고 습한 밤과 건조하고 더운 낮의 기온 차이로 인해 일어난 현상이었지만 옛날 그리스 인들은 이 현상을 두고 트로이 전쟁의 영웅 한 사람인 뱀논이 살아 돌아 왔다고 생각했다. 이 전설은 이집트인들이 이 조각을 뱀누라고 불렀기 때문에 더욱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전설로 인해 그리스인들은 물론이고 로마인들에게까지 이 곳으로 순례를 오기도 했다고 한다. 하드리아누스 황제까지 순례를 왔었다. 하지만 셉티미우스 세베루스(서기 146-211) 황제가 조각상을 보수할 하니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다. 룩소르를 출발하여 1시간 거리인 카이로로 돌아왔다. 이차대전이 일어나자 일본을 항복시키기 위해 카이로 회담이 열린 곳이며 나는 어릴 때 이 전쟁 통에 살았다. 묘한 격세지감을 느낀다.

4월 7일... 호텔(Pyramisa isis) 카이로에서 2시간 거리인 아테네행 비행기에 오른다. 아테네 도착 후 수니온 곳으로 옮겨 바다의 수호신인 포세이돈 신전을 본다. 바다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일까? 신들의 고향이다. 인간이 이 신전 앞에 언제나 교만하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했으리라. 아테네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한다.

4월 8일... 호텔 (Emmantina) 조식 후 지중해의 짙푸른 바다를 헤치며 크루즈 배는 움직인다. 베네치아 지배당시의 건물이 아직 남아있는 아름다운 항구다. 저 언덕 너머로 신전이 있는 고적지는 일부 버스로 가고 우리 몇몇 일행은 해변의 상점이며 동리 안으로 둘러본다. 해변을 따라 가보면 작은 별장 같은 집들도 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여름에 휴양 오는 곳인가 보다. 해변 골목안 노천식당에서 고기 깃든 음식으로 맥주 한잔을 기울인다. 돌아오는 배는 뱃머리에 파도를 만나 심하게 요동한다. 에게해의 파도를 가르며 우리를 실은 크루즈는 스카이 블루색의 그리스 국기가 우리를 환송하듯 나부낀다.

수도 아테네 인구는 350만 98%가 그리스 정교를 믿는다. 그리스 인구 110만 국토의 70%가 산악지대이며 전체 섬 427개 중 134개 섬에서만 사람이 살고 있다. 세계화물의 17%를 그리스 국적의 선박이 운송하는 선박대국 1월부터 12월까지 그리스 정교의 축제가 이어지고 화산지대인 고로 5, 6층 이하로 푸른 바다와 나지막한 흰색 집들이 아름답다. 수도 아테네는 제우스의 딸 아테네 여신의 이름

이다. 유네스코에 지정되어 세계문화유산인 아크로폴리스, 파르테논 신전은 바로 전쟁과 지혜의 여신 아테네 여신의 신전이다. 고대 도시 아크로폴리스는 언덕위의 도시라는 뜻이다. 아크로폴리스 정상에 우뚝 선 아래나니케 신전은 승리의 여신이다. 훗날 나이키상표의 기원이 되기도 한다. 1687년 터키군에 의해 파괴된 것을 그리스 독립 후 각국의 고고학자에 의해 파편을 모아 복원되었다.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은 파르테논 신전 뒤에 자리 잡고 있는 박물관으로 새로운 박물관이 건립 중에 있어 이전할 예정이다.

아티쿠스 음악당은 현재는 지붕이 없다. 언제나 음악회가 열리고 우리나라 조수미(가수)도 여기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다니 감회가 새롭다. 아크로폴리스, 파르테논 신전은 아크로폴리스 최대의 신전으로 BC 432년 페리클레스 시대에 천재조각가 피디아스 감독 하에 15년에 걸쳐 당대 조각가 석공 등을 총동원하여 만들었다. 소크라테스가 갇혔던 녹슨 감옥 창살을 만져본다. 서양의 철학과 학문의 뿌리가 이런 석학들로 하여금 시작되는데 말이다. 그리스에서 아크로폴리스는 굴뚝 없는 공장이다. 이로 하여금 전 세계의 관광객이 오며 선박운송업, 대리석 가공 수출, 많은 올리브유 등은 대표적 국가 수입원이 된다.

그리스는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오래 받아 그리스의 뼈아픈 과거의 역사로 국가 총생산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며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제도 등 많은 복지정책으로 국가경영이 어려움에 처하기도 한다. 저 푸른 에메랄드 색 에게해는 염도가 높아 플랑크톤이 적어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단다. 그리스인은 노래보다 춤을 좋아하며 그래서 아테네 시내에는 노래방이 없다고 들려준다. 식당에 들러 즉흥적으로 포도주 몇 병으로 마담과 손님이 식탁 옆에서 춤을 추는 것을 어느 TV에서 보았다. 아마도 이런 풍속인가 보다. 제1회 올림픽 경기가 열린 나라 그리스 아테네는 1896년 4월 5일 당시는 수 백 명이 참가한 동네 잔치 격이었다. 관중석의 계단이며 운동장이 모두 대리석으로 말끔히 단장되어 지구촌 사람들이 꼭 한번은 보고픈 곳이다. 올림픽 경기장(파나티아콘)에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경기시 양궁경기가 여기에서 열려 태극기의 불결과 애국가가 울려 퍼진 곳이다. 박성현이 개인전 금메달, 박성현, 윤미진, 이성진이 여자단체 금메달, 남자단체전도 금메달로 이 날은 우리나라 태극기만 한없이 휘날린 곳이다. 그리스는 제1회 올림픽이 개최된 것을 자랑스럽게 올림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마라톤 결승전도 여기에서 치루었다. 대체로 메인스타디움에서 마지막 장식으로 관중들의 열광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말이다. 올림픽 경기장 건너편 길을 들어가니 대통령궁이 있다. 대통령은 의원내각제로 상징적 존재다. 대통령궁 앞에는 시간 시간 경비병이 근무교대의식이 이채롭다. 잠시 서서 우리 일행의 시선을 끈다. 버스를 타고가면 국회의사당도 보인다. 저 회색벽의 호텔이 노무현 대통령과 외국의 정상들도 오면 체재하는 호텔이라고 들려준다. 길가의 가로수는 보리수와 밀감나무다. 노랑노랑 달린 가로수 옆을 걸어 중식은 한식으로 주머니에서 꺼낸 소주로 아테네의 여신에게 여행의 무사함을 기원하는 건배의 술잔을 함께 든다. 피레우스 항구로 이동 오늘밤은 이 큰 배 야간페리(Ferry)로 자동차 화물차도 함께 타는 큰 배이다. 우리는 2층 객실에 배정받았다. 2인 1실로 반짝이는 그리스의 밤하늘 아래 조용히 밤을 새워 내일 아침이면 히오스에 도착할 것이다.

順天金氏 釜山宗親會 諮問委員 西洋畫家 金吉淵

<다음호에서 이어집니다.>

전국에게시는 감찰공 종원에게 삼가 인사드립니다. 다음이 아니오라 근오백여년동안 선부군의 산소를 실전하여 행화도 못하고 참배도 못하여서 죄송한 마음 금할길 없었습니다. 그러나 7-8년 전에 실전한줄로만 알았던 묘소에서 옛날지식을 발견하여 성분도 하고 새로이 석물도해서 행화와 참배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2월17일 임실중중회의에서(강원도 인제 종원 포함) 종의에따라 금번 파보(족보)를 시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러하오니 사직공 종원 및 부호군 종원, 이산현감공 종원 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 없이 참여하여 주시고, 사직공 종원은 종회장인 춘희에게, 부호군 종원은 태연씨에게, 이산현감공(강원도)종원은 남호씨에게 연락하시어 파보에 협조하여 주시길 갈망합니다.

또한 오백여년동안의 충정공, 감찰공, 사직공 삼대 부군에 대한 종손도 결정해서 명실상부한 종중을 설정할 위계이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종보에는 파보(족보) 연락소도 기재해서 통보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찰공 종회장 김춘희 배상

# 회비 입금 현황(인명부록)

2009년 12월 1일부터 ~ 2010년 2월 28일까지

### 회 장

- 1. 김행업 2009. 12. 7 서울특별시 강남구

### 부 회 장

- 1. 김병학 2009. 12. 30 경기도 이천시
- 2. 김승업 2010. 1. 8 서울특별시 송파구
- 3. 김경렬 2010. 1. 11 경기도 고양시
- 4. 김춘희 2010. 1. 19 전라북도 남원시
- 5. 김백원 2010. 1. 19 전라남도 목포시
- 6. 김지섭 2010. 2. 4 충청남도 보령시
- 7. 김경렬 2010. 2. 10 경기도 고양시

### 운영위원

- 1. 김장원 2009. 12. 30 인천광역시 부평구
- 2. 김정수 2010. 1. 19 경기도 가평군
- 3. 김현희 2010. 1. 21 전라남도 해남군

### 고 문

- 1. 김동오 2009. 12. 30 경상북도 문경시
- 2. 김채원 2010. 1. 20 경기도 남양주시
- 3. 김창연 2009. 12. 30 서울특별시 강남구
- 4. 김명규 2010. 1. 26 울산광역시 남구

### 이 사

- 1. 김길홍 2009. 12. 30 충청남도 천안시
- 2. 김상우 2010. 1. 15 서울특별시 종로구
- 3. 김정기 2010. 1. 19 전라남도 목포시
- 4. 김영규 2010. 1. 19 경기도 안산시
- 5. 김영배 2010. 1.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 대 의 원

- 1. 김흥인 2010. 1. 6 대구광역시 동구
- 2. 김대석 2010. 1. 6 충청남도 보령시
- 3. 김장환 2010. 1. 12 충청남도 보령시
- 4. 김현국 2010. 1. 19 서울특별시 서초구
- 5. 김승부 2010. 1. 19 전라남도 해남군
- 6. 김승익 2010. 1. 19 전라남도 해남군
- 7. 김광주 2010. 1. 27 전라북도 전주시

### 회 원

- 1. 김종환 2009. 12. 10 경기도 안성시
- 2. 김종식 2009. 12. 28 경기도 남양주시
- 3. 김지연 2009. 12. 28 경상북도 안동시
- 4. 김동근 2009. 12. 29 경기도 고양시
- 5. 김상의 2009. 12. 29 경기도 고양시
- 6. 김동구 2009. 12. 29 경기도 고양시
- 7. 김상진 2009. 12. 29 서울특별시 금천구
- 8. 김창환 2009. 12. 28 충청남도 보령시
- 9. 김명환 2009. 12. 29 서울특별시 강서구
- 10. 김봉주 2009. 12. 28 전라남도 고흥군
- 11. 김상용 2009. 12. 28 전라북도 익산시
- 12. 김영식 2009. 12. 29 경기도 용인시
- 13. 김동욱 2009. 12. 29 부산광역시 연제구
- 14. 김길원 2009. 12. 29 광주광역시 동구
- 15. 김동경 2009. 21. 29 대구광역시 달서구
- 16. 김중성 2009. 12. 29 대구광역시 달서구
- 17. 김상희 2009. 12. 29 광주광역시 동구
- 18. 김영일 2009. 12. 29 전라북도 정읍시
- 19. 김인선 2009. 12. 30 경기도 고양시
- 20. 김인영 2009. 12. 30 서울특별시 강북구
- 21. 김병남 2009. 12. 30 경기도 김포시
- 22. 김지일 2009. 12. 30 경기도 광명시
- 23. 김종해 2009. 12. 28 경상북도 안동시
- 24. 김상천 2009. 12. 29 경기도 안성시
- 25. 김연수 2009. 12. 30 부산광역시 진구
- 26. 김수일 2009. 12. 30 부산광역시 북구

- 27. 김광연 2009. 12. 30 충청북도 영동군
- 28. 김학연 2009. 12. 30 강원도 철원군
- 29. 김동철 2009. 12. 30 대구광역시 북구
- 30. 김광연 2009. 12. 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31. 김만홍 2009. 12. 31 경기도 안산시
- 32. 김동선 2009. 12. 31 경기도 이천시
- 33. 김재순 2009. 21. 31 서울특별시 마포구
- 34. 김동현 2009. 12. 31 서울특별시 성동구
- 35. 김세희 2009. 21. 31 인천광역시 남동구
- 36. 김한희 2009. 12. 31 경기도 과천시
- 37. 김형근 2009. 12. 31 경기도 고양시
- 38. 김상권 2009. 12. 29 경상북도 군위군
- 39. 김상호 2009. 12. 30 경상북도 포항시
- 40. 김남식 2009. 12. 30 전라남도 고흥군
- 41. 김종훈 2009. 12. 30 강원도 강릉시
- 42. 김인호 2009. 12. 31 부산광역시 북구
- 43. 김호윤 2009. 12. 31 울산광역시 북구
- 44. 김재수 2009. 12. 31 전라북도 전주시
- 45. 김상균 2010. 1. 4 경기도 남양주시
- 46. 김창남 2009. 12. 30 경상북도 안동시
- 47. 김방헌 2009. 12. 30 경상북도 안동시
- 48. 김 진 2009. 12. 30 경상북도 안동시
- 49. 김병현 2009. 12. 31 전라남도 영암군
- 50. 김영수 2009. 12. 31 경상북도 성주군
- 51. 김춘연 2010. 1. 4 경기도 양주시
- 52. 김상휴 2010. 1. 5 경기도 안양시
- 53. 김원백 2010. 1. 5 경기도 광명시
- 54. 김창열 2010. 1. 5 경기도 용인시
- 55. 김종탁 2010. 1. 6 서울특별시 마포구
- 56. 김옥계 2010. 1. 4 경상남도 하동군
- 57. 김두연 2010. 1. 4 경상북도 상주시
- 58. 김주운 2010. 1. 7 서울특별시 성동구
- 59. 김동한 2010. 1. 7 경기도 이천시
- 60. 김종식 2010. 1.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61. 김광도 2010. 1. 5 강원도 양구군
- 62. 김연만 2010. 1. 7 충청북도 청원군
- 63. 김이연 2010. 1. 7 경기도 용인시
- 64. 김중희 2010. 1. 7 광주광역시 북구
- 65. 김선원 2010. 1. 7 대구광역시 수성구
- 66. 김병도 2010. 1. 8 인천광역시 서구
- 67. 김용흠 2010. 1. 8 경기도 남양주시
- 68. 김세환 2010. 1. 8 충청남도 보령시
- 69. 김기환 2010. 1. 7 경상북도 문경시
- 70. 김승태 2010. 1. 11 충청남도 아산시
- 71. 김동국 2010. 1. 8 서울특별시 은평구
- 72. 김정균 2010. 1.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73. 김종목 2010. 1. 7 경상북도 안동시
- 74. 김영조 2010. 1. 11 광주광역시 서구
- 75. 김병수 2010. 1. 11 전라남도 구례군
- 76. 김동신 2010. 1. 11 경기도 용인시
- 77. 김진해 2010. 1. 11 광주광역시 북구
- 78. 김안석 2010. 1. 11 전라남도 해남군
- 79. 김상용 2010. 1. 11 제주도 제주시
- 80. 김인성 2010. 1. 13 경기도 의정부시
- 81. 김덕홍 2010. 1. 13 경기도 의정부시
- 82. 김귀원 2010. 1. 11 전라남도 담양
- 83. 김인식 2010. 1. 13 경기도 용인시
- 84. 김일재 2010. 1. 15 경기도 이천시
- 85. 김길욱 2010. 1. 15 서울특별시 관악구
- 86. 김종구 2010. 1. 13 경상북도 예천군
- 87. 김창길 2010. 1. 14 전라북도 부안군
- 88. 김종희 2010. 1. 15 광주광역시 북구
- 89. 김준원 2010. 1. 15 광주광역시 동구
- 90. 김형관 2010. 1. 15 광주광역시 북구
- 91. 김교열 2010. 1. 18 서울특별시 종로구
- 92. 김정식 2010. 1. 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93. 김기연 2010. 1. 18 충청북도 청주시
- 94. 김상은 2010. 1. 20 서울특별시 성동구
- 95. 김봉택 2010. 1. 18 경상남도 양산시
- 96. 김윤근 2010. 1. 18 충청남도 예산군
- 97. 김은식 2010. 1. 18 경기도 용인시
- 98. 김윤일 2010. 1. 19 인천광역시 남동구
- 99. 김육남 2010. 1. 19 경기도 고양시
- 100. 김영철 2010. 1. 19 경기도 의왕시
- 101. 김현남 2010. 1. 15 전라남도 고흥군
- 102. 김홍연 2010. 1. 18 울산광역시 중구
- 103. 김태연 2010. 1. 19 충청북도 청주시
- 104. 김종진 2010. 1. 15 전라남도 장성군
- 105. 김상식 2010. 1. 19 대구광역시 동구
- 106. 김일연 2010. 1. 20 울산광역시 북구
- 107. 김동준 2010. 1. 21 경기도 하남시
- 108. 김이승 2010. 1. 21 경기도 의왕시
- 109. 김근모 2010. 1. 21 전라남도 여수시
- 110. 김익희 2010. 1. 22 서울특별시 서초구
- 111. 김구연 2010. 1. 22 서울특별시 강서구
- 112. 김규장 2010. 1. 22 서울특별시 마포구
- 113. 김태연 2010. 1. 22 경기도 용인시
- 114. 김봉희 2010. 1. 22 전라남도 해남군
- 115. 김동규 2010. 1. 25 서울특별시 강서구
- 116. 김갑점 2010. 1. 25 부산광역시 서구
- 117. 김남수 2010. 1. 26 경기도 연천군
- 118. 김중호 2010. 1. 25 강원도 동해시
- 119. 김영태 2010. 1. 25 경상북도 구미시
- 120. 김호철 2010. 1. 26 서울특별시 도봉구
- 121. 김동인 2010. 1. 25 경상북도 문경시
- 122. 김상천 2010. 1. 27 경기도 파주시
- 123. 김천연 2010. 1. 26 울산광역시 중구
- 124. 김병렬 2010. 1. 28 대전광역시 서구
- 125. 김진호 2010. 1. 28 서울특별시 노원구
- 126. 김병한 2010. 1. 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27. 김사연 2010. 1. 29 서울특별시 구로구
- 128. 김공원 2010. 1. 29 광주광역시 서구
- 129. 김치인 2010. 1. 29 강원도 원주시
- 130. 김동구 2010. 2. 1 서울특별시 광진구
- 131. 김성근 2010. 2. 1 서울특별시 강서구
- 132. 김호연 2010. 2. 2 충청북도 청주시
- 133. 김강영 2010. 2. 1 경상북도 문경시
- 134. 김유동 2010. 2. 3 부산광역시 남구
- 135. 김동원 2010. 2. 4 서울특별시 구로구
- 136. 김학주 2010. 2. 5 경기도 남양주시
- 137. 김동현 2010. 2. 8 경기도 시흥시
- 138. 김종두 2010. 2. 8 전라남도 여수시
- 139. 김 명 2010. 2. 16 경기도 양주시
- 140. 김동일 2010. 2. 16 경기도 시흥시

### 무 명 인

- 1. 2009년 12월 28일 우리은행/용산시티파크
- 2. 2009년 12월 29일 국민은행/테크노마트지점
- 3. 2009년 12월 30일 국민은행/대신동지점
- 4. 2009년 12월 31일 이천관고농협
- 5. 2009년 12월 30일 금산군청농협
- 6. 2009년 12월 30일 울산축산농협/삼호지점
- 7. 2009년 12월 30일 농협/임실
- 8. 2010년 1월 5일 국민은행/마포역지점
- 9. 2010년 1월 5일 농협/북원지점
- 10. 2010년 1월 8일 오수농협
- 11. 2010년 1월 15일 국민은행/하안동지점
- 12. 2010년 1월 15일 우리은행/방배동지점
- 13. 2010년 1월 20일 중소기업은행/독섬역지점
- 14. 2010년 1월 25일 우리은행/분당구
- 15. 2010년 1월 26일 도봉농협

# Great Challenge

더 큰 세상을 향해!  
한화의 위대한 도전은 계속됩니다